

제 23 회 한국전자전람회를 맞이하여

첨단 산업사회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우리 전자산업의 한해 결실을 펼쳐보이는 한국전자전람회가 그 스물세번째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회원업체 여러분과 그리고 정부, 관련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969년도에 시작된 한국전자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나 질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국제 전문전시회로 세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은 우리 전자공업인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전자산업의 국내외 환경을 살펴볼 때 금년의 한국전자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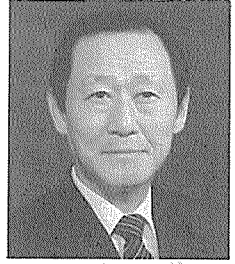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일고있는 산업경제의 블록화 현상으로 우리 전자산업의 주시장이었던 미국과 유럽시장이 빗장을 굳게 걸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EC통합 등은 우리 해외시장에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개도국들의 저임금을 무기로 한 저가품의 추격도 국제경쟁에서 크나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경제 환경과 더불어 국내 전자산업의 경영 환경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 전자산업의 기술개발력 미비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 사태 그리고 경기 불안정으로 인한 업계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업계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기술개발 능력의 제고를 통한 우리제품의 개발 등 각고의 자구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시책들도 뒷바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내외의 첨단 전자제품과 기술들의 경연을 펼쳐 보임으로써 세계 전자산업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금년의 한국전자전람회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 본관과 별관에서 개최되며 이번 전자전의 특색은 동남아의 유명 전자전 특히 대만전자전(10.7~10.13), 일본전자전(10.13~10.17), 홍콩전자전(10.14~10.17) 등과 일정이 맞물려 미국, EC 등의 많은 바이어의 참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산업용기기 부문 중 일부 전시관이 공동 설치 운영되므로써 CATV, 전자의료기기, 컴퓨터 주기판, 소프트웨어, 전자계측기기 등의 제품과 기술의 발전상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 품목별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전시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具 滋 學
韓國電子工業振興會 會長

참가 규모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국에서 530개사가 1출품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은 총 485종 90,000점으로 국내 제품은 335개사에서 320종 72,000점, 외국제품은 195개사에서 165종 18,000점 등으로 전시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업체간 제품간 열띤 경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품업체들의 제품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가정용 전자기기에서는 소비자 니즈에 부응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출현이 두드러져 BS튜너 내장 위성수신 TV, 수평해상도 400선 이상의 고화질 VTR 및 초소형, 초경량화된 8mm 캠코더, CD와 컴퓨터가 조화된 멀티미디어 제품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걸레청소기, 삶는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자기기에서는 노트북 PC와 펜 입력 PC, 고성능화된 주변기기, 그리고 한국형 POS, 독창적인 소프트웨어 등에 시선이 모아질 것이며 국산 간이 쌍방향 CATV, 초소형 휴대형 무선전화기, 저가보급형 팩시밀리, 첨단 전자의료기기, 그리고 산업용 로봇 및 자동설계·조립·검사 등의 공장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 계측제어장치 등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에서는 초고집적 대용량의 64M DRAM 시작품과 12" TFT형 LCD, 더욱 확장된 평면 브라운관, 차세대 제품인 HDTV의 핵심부품인 DY, FBT, 등이 새로 개발되어 출품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업체들은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최신 자동화 시스템과 초정밀 계측제어장치, 특수 규격의 고정밀 부품소재 및 중간재 등의 전시로 국내 업계로부터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시회 기간중 제조업계의 자동화에 대한 의욕고취와 능력배양을 위해 자동화 관련 전자기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자동화 지원 정책, 생산자동화 추진기법, 자동화기술의 사후관리 기법, 그리고 업계의 성공사례 등을 포함하여 업계에 자동화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3회를 맞이하는 한국전자전람회가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굳게 믿으며 갖은 노력과 후원을 해주신 정부 및 관련기관 여러분과 국내외 전자공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사를 드립니다.

1992. 10. 15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